



韩国爱力阳版权代理公司

**Head Office:** 韓國首爾市瑞草區盤浦洞 54-7, e B/D, 3F

**Beijing Office:** 北京市朝阳区朝外大街 10 号昆泰大厦 802 室

Tel: +86-10-65287756 Fax: +86-10-65991878

版權詢問 email:

Mainland China: [eyabeijing@eyagency.com](mailto:eyabeijing@eyagency.com)

台港澳繁體華文地區: [eya-china@hotmail.com](mailto:eya-china@hotmail.com)

Website: [www.eyagency.com](http://www.eyagency.com)

---

# ***EYA (Eric Yang Agency)***

## ***NEWSLETTER***

***2015 年 4 月 2 日***

# 儿童

|                                                                                   |             |             |
|-----------------------------------------------------------------------------------|-------------|-------------|
|  | TITLE       | 10 秒        |
|                                                                                   | AUTHOR      | 李明爱（音译）     |
|                                                                                   | PUBLICATION | 2015. 3. 30 |
|                                                                                   | PAGE        | 60          |
|                                                                                   | GENRE       | 绘本          |
|                                                                                   | RIGHTS      |             |

## BOOK DESCRIPTION

2015 年博洛尼亚国际书展年度最佳插画家！

2015 年纳米国际比赛银奖获奖作家的无字图画书！

对孩子来说是游戏，对大人来说是讲述事由的有深度的图画书！

10 秒的晃动

10 秒的游戏

在这极短的时间内，消失的东西

在某个地方，再次醒来的时间

现在能够让时间再次醒来的人就是看着本书的各位。

李明爱作家的绘本《10 秒》将人类和自然的关系提高了一个次元的思维宽度来解析。一般来说，我们都认为是人类的贪念和失误造成弱小的生物无立足之处。所以很多作家都会对人类应该在接下来的人生中该如何反省提出疑问，建议人们走这条路。

李明爱作家同样也对人类的贪念和不小心表示遗憾。这种思维的结果就是作家的第一本绘本书《塑料岛》。在第二本书《10 秒》中，动物和人类虽然看起来是分离开的，但其实是非常狭窄的空间，而且还在不断的混淆、翻转，可能动物和人类在这个空间中只能要么一起生存要么一起小时。就像在不过 10 秒中的时间所有一切都会颠倒的水球一样，所谓世界也许也是这样。就像不可能永远在剪刀石头布游戏中获胜一样，作家并没有给出明显的结论。仅留下了似是而非的几句话就消失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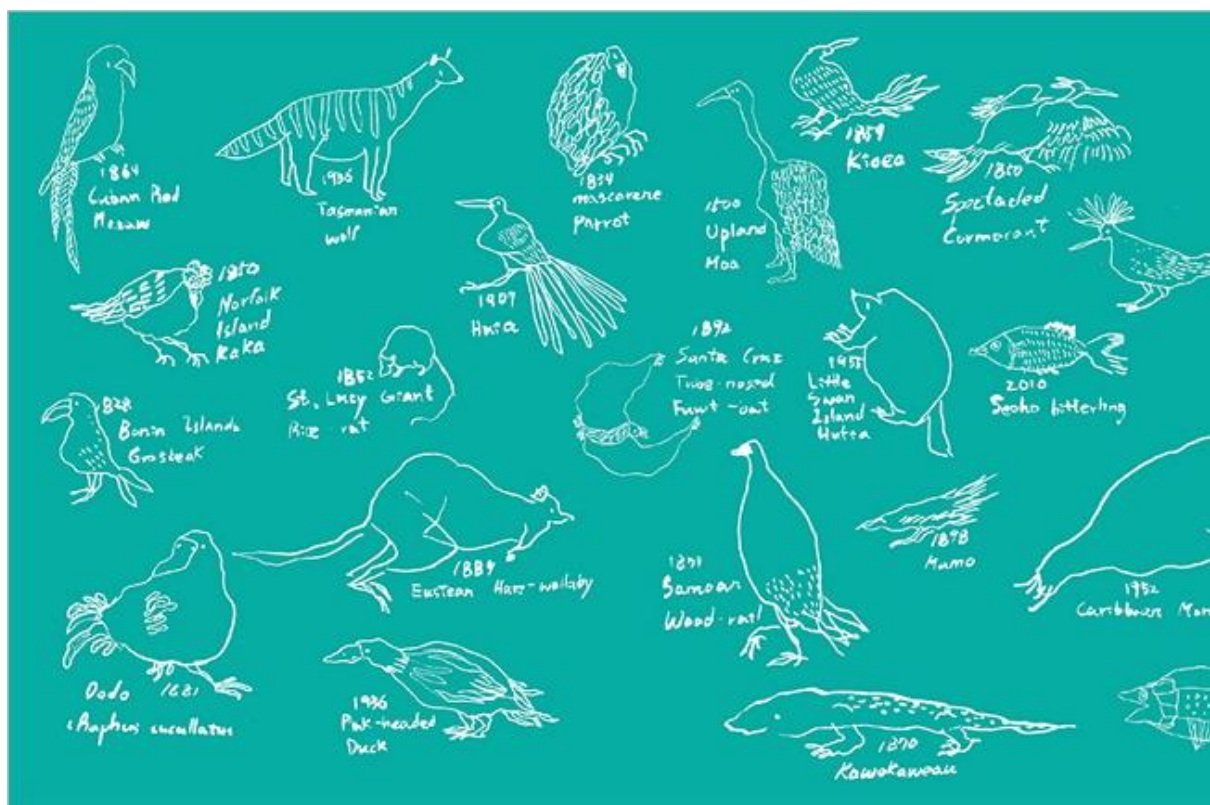
如果您想要了解更多的详细信息，请点击下面的试阅链接：

## ABOUT THE AUTHOR

本是一个夜晚型人类，却生活在一个必须成为早起型人类的世界里。贪吃却试图减肥。自己的生活本是无计划性、无道德性的，却因为两个孩子装作有计划性、道德性。非常讨厌活动，但为了活下去而享受晚间运动。为了成为一个绘本作家，虽然嫌麻烦，但还是提笔看书。就是这样一个及其平凡的人。

曾经获得 2015 年博洛尼亚国际书展年度最佳插画家奖和纳米国际比赛银奖。继第一本书《塑料岛》后出版了第二本书《10 秒》。希望读者能够根据各自不同的观点，用作者也没有的想象力阅读这本书。

## CONTENTS/IMAGE





|                                                                                     |             |             |
|-------------------------------------------------------------------------------------|-------------|-------------|
|  | TITLE       | 最后一个特别活动    |
|                                                                                     | AUTHOR      | 刘恩实（音译）     |
|                                                                                     | PUBLICATION | 2015. 3. 30 |
|                                                                                     | PAGE        | 204         |
|                                                                                     | GENRE       | 童话          |
|                                                                                     | RIGHTS      |             |

#### BOOK DESCRIPTION

韩国儿童图书奖，IBBY Honour List（授勋名单）选中的刘恩实的代表作！

这是一部非常优秀的作品，将儿童文学中极少出现的关于死亡和葬礼的故事用令人心酸的感动和幽默描写出来。本书是描写一个十三岁的少年英旭经历了原本住在一起的爷爷的葬礼过程，逐渐了解死亡这个概念的成长故事。我们所有人的人生前辈，即我们所有人的爷爷奶奶，都在

漫长的人生路中，间或精彩、间或可笑、间或多情、间或失误，本书就是献给他们的美丽歌曲，同时也是对铭记这他们的温暖和爱奋力活在世上的孩子们的鼓励。

如果您想要了解更多的详细信息，请点击下面的试阅链接：

<http://www.yes24.com/24/viewer/preview/17319231>

## **ABOUT THE AUTHOR**

文字：刘恩实

1974 年出生于首尔，毕业于明知大学文艺创作系及同校研究生院。是一个曾经被母亲担心

“这么不读书长大了能干什么”的孩子。从某个瞬间开始，成为了一名喜爱诗歌的青少年，然后成为了一个特别喜欢书的大人，甚至还成了作家。2004 年在《创批儿童》上发表《我的名字叫白石》，从此开始了作家生涯。以《万国旗少年》获得韩国儿童图书奖，《毫发无伤的李瑜婷》入选 2010 年 IBBY（国际儿童图书联合会）的 Honour List（授勋名单）。《最后一个特别活动》将儿童文学中极少出现的关于死亡和葬礼的故事用令人心酸的感动和幽默描写出来，是韩国儿童文学中最出众的作品之一。曾被介绍到法国并在法国出版，也有制作电影的计划。所写童话有《我头发上的太阳光味道》《我也要偏食》等等，青少年小说有《边缘》，图画书有《沈青传》，人物故事《柳宽顺》等。

图画：姜景秀

擅长画既独特又别有机智的图画。因为喜欢漫画，所以画了十年，现在沉迷于童书的魅力中，成为了一名图画书作者。为不少图书配插图，自写自画的书有《谎言般的故事》《把我朋友的腿还回来！》《巨大的屁》《好生气！》等等。《谎言般的故事》曾获 2011 年博洛尼亚童书展非虚构文学作品部门 Ragazzi Award 的优秀奖。

## **CONTENTS/IMAGE**

- |        |        |
|--------|--------|
| 1. 歌曲  | 8. 遗书  |
| 2. 箱子  | 9. 朋友  |
| 3. 家庭  | 10. 报纸 |
| 4. 洗衣服 | 11. 手机 |
| 5. 花   |        |
| 6. 照片  | 作者的话   |
| 7. 寿衣  |        |



할아버지랑 난 우리 집 문간방을 쓴다. 안방은 엄마 아빠, 중간 방은 누나 차지다.

"아버님이 중간 방을 쓰세요. 영육이랑 둘이 좁은데."

엄만 가끔 그런다. 하지만 늘 할아버지가 사양한다. 문간방이 편하니라 신경 쓰지 말라고 한다. 나도 문간방이 편하다. 안방이랑 마주 보는 중간 방에 가면 답답할 것 같다. 문간방에서 할아버지랑 딱 붙어 자는 게 좋다.

"할아버지 입 냄새랑 발 냄새 심한데 괜찮아?"

누나가 가끔 묻는다. 나는 괜찮다. 축농증에 걸려서 잘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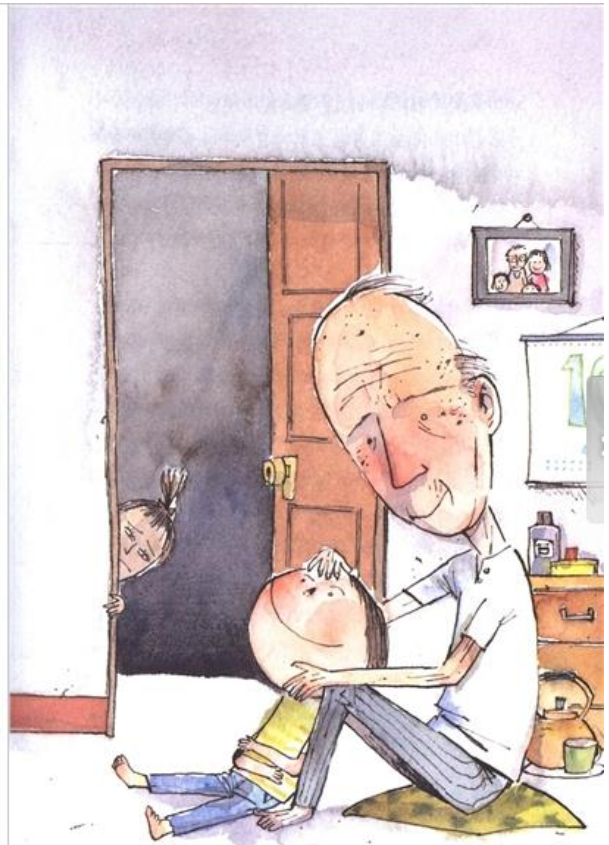
"할아버지 코 골고 이 가는데 괜찮아?"

그런 질문도 한다. 역시 괜찮다. 난 베개에 머리를 대면 일분 안에 잠든다. 잠이 들면 누가 업어 가도 모른다.

"6학년이면 따로 방을 줘야 하는데 미안하다."

엄만 괜한 걱정을 한다. 난 할아버지랑 방을 써서 좋다. 할아버지랑 떨어지는 건 상상하기도 싫다. 아빠랑 떨어지는 상상은 가끔 하지만.

아빠는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녀석이라고 생각한다. 가끔은 '바보 같은 놈', '돼먹지 못한 자식'이라고도 한다. 공



않는다. 큰고모는 "자기 멋대로 소리치면서 평생을 산" 할아버지 책임이란다. 작은고모는 심지어 아빠가 효자라고 그런다. 우리 아빠가 "사고몽치 아버지를 뒤흔다꺼리하는" 불쌍한 아들이라는 거다. 할아버진 어찌다 자식들한테 인기를 잃었는지 모르겠다. 모두 할아버지에게 큰 키랑 작은 얼굴을 물려받아 놓고, 아버지 닮았다고 그러면 인상을 팍 쓴다.

우리 할아버지 키는 182센티미터였다. 지금은 골다공증에 걸려서 177센티미터로 줄었다. 그래도 우리 아파트 노인정에서 제일 크다. 어깨는 좀 구부정하지만 허리는 나이에 비해서 깨끗한 편이다.

할아버진 컴퓨터 도사다. 포토샵도 수준급이다. 문자 메시지도 잘 보낸다. 노인정 어르신들은 휴대폰을 사면 우리 할아버지한테 가져온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설명서를 보고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 할아버진 특히 옥자 할머니를 가르치는데 정성을 들였다. 연습을 핑계로 하루에 문자 메시지를 열통이나 보낸 적도 있다.

"옥자 할머니 좋아해?"

내가 슬쩍 물었더니,

"왜 그래."

그러면서 뺨머리를 긁었다.

옥자 할머니는 얼굴이 뽀얗다. 머리는 완전 백발이다. 얼마 전에 팔순 잔치를 했으니까 할아버지보다 한 살 위다. 이빨은 딱 하나밖에 남지 않아서, 틀니가 없으면 씹을 수가 없다.

"옥자 씨는 아주 똑똑해. 학교도 못 다녔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줄줄 꿰더라. 미릿속에 연표가 쏙 들어 있는 사람 같아."

할아버진 옥자 할머니 얘기를 많이 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자꾸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충격적인 얘길 듣고는 딱 끊었다.



|                                                                                   |             |              |
|-----------------------------------------------------------------------------------|-------------|--------------|
|  | TITLE       | 每天每天吃早餐      |
|                                                                                   | AUTHOR      | Pak, Hyunsuk |
|                                                                                   | PUBLICATION | 2014. 08. 25 |
|                                                                                   | PAGE        | 136          |
|                                                                                   | GENRE       | 童话           |
|                                                                                   | RIGHTS      |              |

### **BOOK DESCRIPTION**

家和万事成，家食万事成！

家人们要一起吃饭才能万事如意！

某一天有一个外国著名大学的教授在电视栏目里说家人们要每天聚在一起吃饭，家庭才能和睦。正好看到这一节目的爷爷就跟全家人提议说要家人们全部聚在一起吃饭，并以此作为自己的生辰礼物。可是繁忙的爸爸总是因为上班要迟到而匆匆忙忙跑出家门，奶奶也因为跟朋友的约会而出门赴约，喜欢珉豪的美德说珉豪曾经看着他的肚子笑话他所以减肥中坚决不吃早饭，妹妹美智吃饭之前总是吃很多零食然后闹着说吃不下早饭…爷爷看着全都不配合的家人觉得非常生气，因此，爷爷突然宣布自己要写遗言。妈妈为了让爷爷开心，给全家人下达了一定要一起吃早餐的命令。

一开始，因为不是很了解对方各自具体的情况而不知道该说什么；开始一起吃饭时的氛围肯定也都很别扭和尴尬；更雪上加霜的是美德和美智为了不吃早饭早早逃跑去上学了。突然，美德收到的一封情书让早餐的氛围发生了变化…

如果您想要了解更多的详细信息，请点击下面的试阅链接：

<http://www.yes24.com/24/viewer/preview/14163359>

### **ABOUT THE AUTHOR**

溪圆造型艺术大学动画系毕业，毕业后作为绘图作家活动中。2009 曾经参加 EBS 主办的“世界绘画巨匠展”，并取得了大奖；2012 年获得了博洛尼亚歌剧 prima 奖。代表作品有图画书《圭娜的白色画布》和童话书《头发上的阳光味道》等

### **CONTENTS/IMAGE**

一起吃早饭？

伤自尊

什么妈妈竟然连女儿的梦想都不知道

富翁

爷爷的财产有很多

我也不喜欢你

对话真难

长得好就是全部吗

虽说世界上没有秘密

嫉妒作战

减肥啊，再减



“밥 먹자.”

밖에서 엄마가 소리쳤다.

“이잉이잉~ 댜 어파.”

멀뚱하던 미지가 징징거리며 방에서 나갔다. 내가 엄마라도 지긋지긋하겠다.

“살마 나를 부르지는 않겠지.”

어제 나는 분명히 내 결심을 이야기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야채밥을 먹지 않을 거고 다이어트에 꼭 성공할 거다. 민호가 떠오르자 또 슬피졌다.

“포르퉁.”

밖에서 밥 달라고 아우성쳤다. 어제 저녁도 딱 두 숟가락 정도만 먹었다. 눈앞이 뻥뻥 들떠 어지러웠다. 먹은 것 같지도 않은 밥을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는데 슬픔이 퍼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밤늦게까지 울었다. 배고파서 울고 자존심 상해서 울고.

“미담아, 너 민호한테 편지 왔었니?”

쫘! 심장이 툭 떨어졌다.

“미담이가 민호에게 편지를 썼다고? 무슨 편지? 연애편지? 아이고야, 4학년이 뵈 그리 급하다고 벌써 연애편지를 써? 나는 스무 살이 갓 넘어서야 동네 송각한테 받아봤는데.”

할머니가 말했다. 순간 할아버지 표정이 무섭게 변했다.

“여, 연애편지, 편지는 무슨, 아, 아니거든요…….”

나는 말끝을 흐렸다. 아니라고 잡아매기에는 좀 그렇다. 편지에는 민호의 모든 것을 좋아한다는 말로 가득 채웠다. 좋아한다고 썼으니 연애편지 맞다. 그런데 민호 개는 그런 걸 엄마한테 다 말하나 보다. 마마보이 같으니라고.

“너, 편지에 민호 오리엉덩이 얘기도 썼니?”

썼다. 민호의 모든 면이 다 좋다고 쓰고, 특히 오리엉덩이 춤을 출 때 제일 좋다고 썼다. 그건 농담이 들어간 말이었다. 얼굴도 장생게 좋고 성격도 좋고 모든 게 다 좋다는 말을

